

몰래 만난 트럼프·푸틴...무슨 말 오갔나

G20 정상회담 당일 또 회동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
지나친 접촉 여야 비판
트럼프 장남 청문회 증언대에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7일 열린 G20 정상회담 기간에 또 비공식적인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자리에서 악수를 나누는 두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초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7일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한 차례 더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이 18일(현지시간)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무러 특별검사가 트럼프 주니어의 법사위 공개 증언을 허락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직계가족이 처음으로 의회 증언대에 설 전망이다.

18일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러 정상의 비공식 만남은 공식 양자회담과 같은 날 열린 G20 정상회의의 만찬 자리에서 이뤄졌다. 이날 만찬의 참석 대상은 각국 정상과 배우자들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중간쯤 자리에서 일어나 푸틴 대통령에게 다가간 뒤 옆자리에 앉았다고 익명을 요청한 미 정부 고위 관료가 WP에 전했다. 마이클 앤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ABC뉴스에 “만찬이 끝나갈 때 대통령이 푸틴에게 말을 걸었다”며 다소 엇갈린 설명을 내놨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혼자였고, 푸틴 대통령도 공식 통역사만 대동하고 있었다.

두 정사는 러시아 통역사를 통해 한 시간가량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WP와 뉴욕

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언론에도 알리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두 번째 만남은 정치 컨설턴트인 유라시야그롭의 이인 브레머 대표가 지난 17일 고객들에게 보낸 뉴스레터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2명의 참석자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브레머 대표는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활발한 대화에 어리벱벱하고 아연실색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미·러 정상회담에서 예정된 35분을 훌쩍 넘겨 무려 2시간

15분 동안 대화를 이어간 것은 물론 만찬장에서 이례적으로 긴 회동을 한 것은 그가 G20 내내 얼마나 푸틴 대통령과 우정을 다지는 데 공을 들였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WP는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이 적국의 리더와 지나치게 친밀한 장면을 연출한 것을 놓고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WP는 내다봤다.

아울러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머큐름을 드리우는 가운데 이번

공개된 추가 만남은 두 정상 사이의 관계에 새로운 의문을 제기한다고 NYT는 지적했다.

한편 ‘러시아 스캔들’ 핵심으로 떠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상원에서 관련 증언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 내통설을 조사 중인 법사위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지만, 그는 러시아 내통 의혹이 불거지자 의회에서 당시 상황을 증언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트럼프 주니어의 증언 가능성은 큰 상황이다. /연합뉴스

‘독도 도발’ 일본 방위백서 당정회의 통과

다음달 국무회의서 확정

일본의 2017년 방위백서 초안이 지난 18일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 국방부분 당정회의를 통과했다.

다음달 각(국무회의)에서 확정되는 방위백서에는 지난해에 이어 13년 연속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명칭)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

또 방위백서의 ‘우리나라(일본) 주변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등 지도에도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명으로 소개된 바 있다.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들

어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만큼 올해 방위백서에도 이런 내용이 그대로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백서 초안에는 북한이 지난 4월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이라고 명시하고 도발 증가 가능성을 지적했다고 지지통신이 19일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표현도 종전의 ‘중대하고 질박한 위협’에서 ‘새로운 단계의 위협’으로 한 단계 높였다.

한편, 방위성은 오는 8월 재무성에 제출할 내년도(2018년4월~2019년 3월) 예산요구안에 방위비를 올해 예산보다 1000억엔(약 1조원) 많은 5조2000억 엔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올 회계연도 본예산에 방위비는 5조 1251억엔으로 편성됐다. /연합뉴스



보코하람 피랍소녀 만난 유사프자이 여성교육운동가이자 2014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탈레반 피랍소녀’ 말랄라 유사프자이(가운데 오른쪽)가 18일(현지시간) 나이지리아 마이두구리 난민촌을 방문, 보코하람에 납치됐다 풀려난 여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말랄라는 “나이지리아 소녀들을 위해 싸우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중국·러시아, 발트해서 첫 합동 군사훈련

중국 군함이 이달 21일(현지시간)부터 열리는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합동훈련 참가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발트해에 진입한다.

발트해는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러시아가 맞서는 곳이다. 최근 국제무대에서 한 목소리를 내온 중러 양국이 이 지역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군함을 보내는 것은 미국에 무력시위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9일 환구망(環球網)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중국 해군 함정들이 21일 발트해에 진입해 28일까지 러시아와 함께 ‘해상연합-2017’ 첫 단계 훈련을 한다. 이 훈련에 러시아는 합정 10여척과 항

공기 및 헬리콥터 10대 이상을 동원하고 중국은 최신형 미사일 유도 구축함인 052D급이 참여한다.

중국의 해군 군사전문가인 리제(李杰)는 “중국 군함이 발트해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이번 합동훈련은 중국이 향후 해상 위협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트해가 러시아와 유럽의 주요 해상 무역통로로 미국과 러시아 간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발트해 국가들의 접경지대에서 벌이는 중러 양국의 합동 군사훈련의 투명성을 촉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

극성 중국 엄마들 “자녀 유학 1억 투자 가능”

중국 학부모들이 자녀의 해외유학을 위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중국 인민망(人民網) 영문판이 19일 보도했다.

인민망은 해외투자기관인 HSBC의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학부모들이 자녀 유학비로 10만 달러(약 1억1300만원)를 투자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중국의 도시 근로자 1인당 연평균 소득인 6만7569위안(1122만원)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10년 간 임금 전액을 저축해야만 모을 수 있는 액수다.

HSBC는 15개국 8481명의 학부모를 상대로 교육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해 이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학부모 중 55%는 자녀 교육을 위해 저축, 투자, 보험 등을 통해 자녀 교육비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 중 43%는 자녀 교육비 전용 재테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 세계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중국의 뜨거운 교육열을 잘 나타낸다고 인민망은 분석했다.

특히 중국 학부모 30% 이상이 자신의 노후 준비보다 자녀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해외에서 유학하는 중국인 유학생 수는 54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해외 유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상무부, 한국 합성섬유도 반덤핑 조사

확인 댄 관세 부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어 상무부가 한국에서 생산한 합성섬유 제품에 반덤핑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미 상무부 국제무역관리청(ITA)은 18일(현지시간) 한국과 대만산 저(低)용점 폴리에스테르단섬유(PSE)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ITA는 한국이 미국에 덤핑가격으로 저용점 PSE를 수출하면서 최소 39.24%, 최대 52.23%의 덤핑 마진을 올렸다는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대만의 경우에는 덤핑 마진율이 28.47~73.21%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저용점 PSE는 침구나 가구 쿠션, 단

열제, 자동차 흡음재의 소재가 되는 합성섬유다.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68.2%에 달해 1위를 달리고 있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이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저용점 PSE는 총 6만 3086t, 액수로 따지면 7656만 달러(약 85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늦어도 오는 12월 4일까지 ITA의 예비판정 결과가 발표되며, 내년 2월 20일에는 최종판정까지 나올 전망이다.

ITA는 지난월부터 한국과 대만산 저용점 PSE의 산업피해 조사에 나섰다. ITC의 예비판정 결과는 다음달 11일에 발표된다. 미국은 반덤핑조사를 상무부 ITA와 ITC가 진행하며 양측에서 각각 덤핑과 산업피해를 확인하면 상무부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연합뉴스

호텔급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내, 대형모텔
- 대지 573평 건물 685평, 지하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전체 리모델링, 7월20일 오픈예정
- 연수원, 수련원, 요양원 등 기타시설 가능, 케이볼카 운영시 대박!
- 시세/감정가 - 20억, 매매 - 17억 (융자 8억포함)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산수유/벚꽃/매화축제, 여름휴가, 등산객 등 성수기철(5개월)영업으로 순수익 3억 가능!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 H. 010-3605-5000